

中國 고전시에 나타난 소나무 묘사 고찰

배 다니엘*

目 录

- I. 서 론
- II. 中國 古典詩에 나타난 소나무 양상
 - 1. 변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 2. 강인한 생명력과 장수의 표식
 - 3. 인내력과 내한성의 상징
 - 4. 외로움이나 회재불우함의 표현
- III. 결어

I. 서 론

‘소나무(松樹)’는 그 자태와 속성이 고아하며 역사가 깊고 분포지가 다양하여 예로부터 많은 사랑과 칭송을 받아온 나무이다. 『詩經』「衛風·竹竿」의 “기수가 유유히 흐르니, 전나무로 노를 만들고 소나무로 배를 만든다. (淇水悠悠, 檣楫松舟)”라는 기록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소나무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효용성 또한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소나무는 한국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닌 나무라 할 수 있다. 관상용, 정자목, 神木, 당산목 등으로 많이 심어졌는데 특히 마을을 수호하는 神木이나 산신당의 山神木 중에는 소나무가 가장 많았다.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며¹⁾ 우리나라 어디서

* 남서울대 중국학과 교수.

1) 2006년에 산림청이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물어본 결과

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나무 금줄²⁾과 인연을 맺은 후로 솔솔과 함께 생활하고 소나무를 활용한 음식을 먹으며 소나무가 그려진 십장생도 병풍이나 가구, 송연묵으로 간 먹물 등을 사용하다가 중국에는 소나무 관 속에 들어가 도래솔이 둘러싼 무덤에서 소나무와 함께 영겁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소나무와 밀접한 생활을 해왔다.

소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침엽 교목으로 한국, 중국 북동부, 우수리, 일본 등 주로 극동지방에서 성장하는 식물이다. 한국에서 소나무는 ‘소나무’라는 명칭과 함께 솔, 참솔, 솔나무, 송목, 소오리나무 등으로도 불리어지고 있고 한자어로는 松, 赤松, 松木, 松樹, 青松, 雌松, 遼東, 油松 등의 명칭을 지니고 있다.³⁾ 중국에서도 소나무는 매우 중요한 수목이며 白皮松, 雪松, 黃松, 紅松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⁴⁾ 성장지에 따라 ‘陸松(내륙)’과 ‘海松(바닷가)’으로 분류되고 잎의 개수에 따라 ‘2엽송(적송, 해송 등)’, ‘3엽송(백

절반에 가까운 46%가 소나무를 꼽았으니 2위를 차지한 은행나무(8%)와 격차가 있다. (박상진, 『우리나무의 세계』, (서울: 김영사, 2011. 1.) 367쪽) 또한 2004년 6월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인은 은행나무(4.4%), 단풍나무(3.6%), 뽕나무(3.4%), 느티나무(2.8%)를 제치고 소나무(43.8%)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한 바가 있다. (전영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서울: 현암사, 2004. 10.) 16쪽)

2) 소나무는 잡귀와不正을 물리치고 祭儀공간을 정화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 출산이나 장을 담글 때 금줄을 치면서 금줄에 솔·고추·백지·솔가지 등을 꿰어 놓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반영이었다.

3) 소나무는 한자로 ‘木’과 ‘公’을 합한 형성문자 松으로 쓰는데 이때의 公은 ‘公爵’의 公이라는 벼슬을 의미하는 설이 있다. 일찍이 진시황제가 泰山에서 비를 피하게 해준 소나무에게 ‘木公’이라는 벼슬을 주었고 이에서 ‘松’자가 되었다는 설이다. 한국말에서 소나무, 또는 솔이라는 말이 있는데, ‘솔’은 ‘으뜸’이나 ‘우두머리’를 뜻하며 나무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수리’, ‘솔’이라고 부르다가 ‘솔’에서 ‘솔’로 변천하고 솔나무에서 ‘근’이 탈락하여 소나무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강관권, 『나무열전』, (과주: 솔향아리, 2007. 8.) 70-72쪽 참조)

4) 중국에는 총 10屬, 113종, 29변종의 소나무가 있다. 특성과 자생지에 따라 白皮松, 雪松, 黃松, 紅松 등으로 분류된다. 수피가 탈락하여 흰 색이 드러나는 白皮松은 山西, 河北, 河南, 陝西, 甘肅, 四川 북부, 湖北 서부 등에 많이 자생한다. 雪松은 히말라야산에 자라며 紅松은 果松, 海松 등으로도 불리는데 내한성이 강해 小興安嶺 산맥과 백두산 일대에서 주로 자란다.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459쪽 참조)

송, 리기다소나무, 테다소나무), '5엽송(갯나무)' 등으로 분류된다. 모습과 특성에 따라 赤松(紅松), 白松, 盤松, 金剛松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잎과 화분, 나무 등의 효용성 역시 지대하다.⁵⁾

소나무는 청정하고 빼어난 자태, 계절에 상관없이 상록을 유지하는 불변성,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내한성,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강인함 등으로 인해 나무 중의 제왕이라는 칭송을 받는 나무이다. 이러한 소나무가 지닌 속성은 사람들의 의식에도 지대한 각성의식을 주어 고대의 각종 문헌에서부터 많은 묘사를 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⁶⁾ 다양한 미감과 상징성

5) 소나무의 학명은 'Pinus densiflora'이며 영어명은 'Japanese red pine'으로 1842년 네델란드 식물학자 주카르니(Zucarinii)가 『일본식물지』 1권에 '일본적송(Japanese red pine)'으로 소개한 것에서 유래한다. 겉씨식물 구과목으로 5월에 개화한다. 수꽃은 새가지의 밑부분에 달리며 노란색으로 길이 1cm의 타원형이다. 암꽃은 새가지의 끝부분에 달리며 자주색이고 길이 6mm의 달걀 모양이다.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길이 4.5cm, 지름 3cm이며 열매조각은 70~100개이고 다음해 9~10월에 노랑빛을 띤 갈색으로 익는다. 종자는 길이 5~6mm, 너비 3mm의 타원형으로 검은 갈색이며 날개는 연한 갈색 바탕에 검은 갈색 줄이 있다. 또한 지구상의 소나무는 100종에 달하는데 각 종류마다 속성이 다양하니 남복송(男福松, aggregata)은 열매인 구과가 가지의 밑부분에 모여 나며 여복송(女福松, congesta)은 열매인 구과가 가지의 끝부분에 여러 개가 모여 달린다. 금송(金松, aurescens)은 잎의 밑부분을 제외하고 잎 전체가 황금 빛깔을 띠며 은송(vittata)은 잎에 흰색 또는 황금색의 가는 선이 세로로 있다. 金剛松(erecta)은 줄기가 뭉뚱하고 곧게 자라며 외형적으로 소나무의 형태이나 곰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와 곰솔간의 잡종으로 본다. 처진소나무(pendula)는 가지가 가늘고 길어서 아래로 늘어진 형태이다. 반송(盤松, multicaulis)은 줄기 밑부분에서 굵은 결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수형이 우산처럼 생겼다. 소나무의 효용을 보면, 잎은 차와 식용재료에, 송아가루 화분은 다식에, 껍질은 송기떡 등에 각기 재료로 활용되어 식용된다. 뿐만 아니라 잎은 소화불량이나 강장제에, 꽃은 이질에, 송진은 고약의 원료 등 약용으로도 쓰인다. 나무는 중요한 건축재나 펄프용재로 이용되고 테레핀유는 페인트 등의 원료로 쓰인다. 한편 美松은 미국의 대표적인 바늘잎나무로서 소나무와는 속이 같으나 屬이 다르며 金松은 낙우송과의 나무로 소나무와 관련이 없다.

6) 『論語·子罕』편에 보면 孔子가 소나무를 칭찬하여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禮記·禮器』: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마음은 사계절을 통해서도 그 가지와 잎을 변치 않는 것이다. (松柏之有心也, 貫四時而不改柯易葉.)”, 『莊子·讓王』: “큰 추위가 오고 서리와 눈이 내리니 송백의 견재함을 알겠도다. (大寒既至, 霜雪既降, 吾是以知松柏之茂也.)”, 『莊子

으로 인해 여러 시문과 그림 속에 등장하였으니 일례로 『全唐詩』 詩歌 篇名 중의 花木 상위 20위중⁷⁾ 중에서 측백나무(栢)와 함께 제4위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작품 속에서 활용된 소나무의 중요성이 실로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목 중 강인함과 청정함의 대명사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소나무의 이미지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歷代 中國 古典詩에 나타난 ‘松樹’의 묘사양상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역대 시가에서 묘사된 소나무의 풍모와 이 묘사에 담긴 문인들의 미학적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시가 중에서 소나무가 지닌 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문학작품에서 언급된 각종 수목에 대한 전반적 연구에 있어 하나의 기초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II. 中國 古典詩에 나타난 소나무 양상

인간과 함께 생활해 온 樹木들은 각기 다른 형상과 특성을 갖고 인간의 생활에 많은 효용성을 제공했으며 자신이 지닌 다양한 상징성을 통해 인간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⁸⁾ 각종 수목에 형성된 다의적인 상징성은 작품창

· 德充符』: “땅에 명을 받은 것 중에 오직 송백만이 올곧다. 겨울과 여름에 청청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명을 받은 것 중에는 오직 요순만이 올곧으니 이는 만물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다. (受命于地, 唯松柏獨也正, 在冬夏青青; 受命于天, 唯堯舜獨也正, 在萬物之首.)”, 『荀子·大略』: “날씨가 춥지 않으면 송백을 알 수 없고 일이 어렵지 않으면 군자를 알 수 없다. (歲不寒, 無以知松柏. 事不難, 無以知君子.)” 등의 기록을 통해 先秦時代부터 松柏에 대해 칭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7) 『全唐詩』의 詩歌 篇名에서 발견되는 花木을 상위 20위까지 빈도순으로 열거해 보면, 楊柳(1095), 竹(394), 松柏(368), 蓮荷(245), 梅(153), 桃(143), 蘭(139), 牡丹(138), 菊(108), 茶(123), 杏(98), 桂(94), 桑(88), 梧桐(79), 櫻桃(57), 石榴(54), 薔薇(51), 蒲(40), 海棠(34), 蘆葦(34) 순으로 나타난다. 본 『全唐詩』 詩歌 篇名의 花木 빈도순은 程杰, 「論中國文學中的杏花意象」, 『江海學刊』, 2009. 1.)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8) 소나무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세 분야로 나누어 언급할 수 있다. 소나무를 목재로 이용하는 것을 일차원적 효용, 맑은 공기, 수리 조절, 보건 휴양 등 나무들이 존재함으로써

작에 있어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고 그로 인해 형성된 의상은 그 상징성을 통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 소나무는 나무 중의 제왕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무로써 불변의 절개, 강인한 생명력과 장수, 인내력과 내한성 등의 굳건한 이미지와 함께 고아함에서 기인한 외로움이나 懷才不遇한 신세의 표현 등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 이제 중국 역대시가 속에서 소나무의 상징성과 그러한 면모를 표현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변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소나무의 잎은 수명이 2년인데 2년생 잎이 황갈색 낙엽으로 떨어지더라도 곧 1년생 새 잎이 들어선다. 소나무에는 1, 2년생 잎이 늘 푸른빛을 띠고 달려 있어 상록수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常綠의 자태는 한국과 중국의 시가에서 주로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다. 매서운 추위와 사나운 눈, 비바람에도 꺾이거나 시들지 않고 깨끗한 자세와 푸르름을 지니고 있는 모습은 굳은 의지와 절개를 비유하기에 적절한 소재였던 것이다. 孔子가 『論語·子罕』편에서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칭찬하여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안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松柏之操”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소나무의 기개를 개괄하는 단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역대시가에서는 松樹를 변치 않는 忠貞과 友誼, 愛情 등의 의미로 많이 활용하여 왔다.

唐代 王審가 쓴 다음 작품은 소나무의 절개를 나타낸 것으로써 거의 매 행마다 소나무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써 제공하는 가치를 이차원적 효용, 소나무의 씩씩함, 굳은 절개, 깊은 부부의 사랑 등의 상징성을 삼차원적 효용으로 말할 수 있다. (임경빈, 『소나무』, (서울: 대원사, 1998. 7.) 28쪽)

「松」

寒松聳拔倚蒼岑	차가운 소나무 청산에 우뚝 빼어나
綠葉扶疏自結陰	푸른 잎 무성하게 절로 그늘을 만든다
丁固夢時還有意	丁固가 소나무 꿈을 꾸었을 때 뜻을 이루었는데
秦王封日豈無心	진시황이 五大夫松을 봉할 시 어찌 생각이 없었으리오?
常將正節栖孤鶴	소나무는 늘 정절을 지켜 외로운 학이 깃드나니
不遣高枝宿衆禽	높은 가지에 다른 못 새들은 깃들지 못하도다
好是特凋群木後	모든 나무들 시든 후에
護霜凌雪翠逾深	서리와 눈이 내려도 소나무는 푸른 빛 더욱 깊어라

수연에서는 소나무가 있는 곳과 자태를 그렸는데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빼어난 모습이 돋보인다. 한 구 내에서 ‘寒松’과 ‘蒼岑’, ‘綠葉’, ‘結陰’ 등으로 푸른빛과 음양의 조화를 또렷이 부각시킨 것이 이채로운 필법으로 보인다. 함연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여 소나무가 지닌 신비로운 기개를 더욱 배가시켰다. 三國時代 丁固가 소나무 꿈을 꾸 후 자신이 훗날 公의 자리에 오를 뜻을 가졌는데 결국 이 꿈을 이루었다는 고사⁹⁾와 秦始皇이 泰山에서 비를 피하게 해준 소나무를 五大夫로 봉한 고사¹⁰⁾를 통해 허구적인 사실감을 투영하였다. 이어 소나무와 벗이 되는 ‘孤鶴’과 그와 비교되는 ‘衆禽’을 대조함으로써 범상치 않은 소나무의 기개를 통해 만나기 쉽지 않은 고상한 품덕을 지닌 사람을 칭송하였다. 결미에서는 소나무가 지닌 정직, 고결함, 정절 등의 각종 장점 중에서도 서리와 눈에도 굴하지 않고 푸른빛을 변치 않고 있는 常綠의 기상을 가장 높이 칭송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李商隱이 쓴 다음 작품은 다른 화목과의 비교를 통해 소나무의 변치 않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題小松」

憐君孤秀植庭中 정원 나무 중 외로이 빼어난 너의 모습 아껴

9) 『三國志·吳志·孫皓傳』：“初，丁固因爲尙書，夢松樹生其腹上，謂人曰：‘松字十八公也，後十八歲，吾其爲公乎？’卒如夢焉。”

10) 『史記·秦始皇本紀』：“秦始皇祭泰山，遇暴風雨，避于松下，于是封此松爲五大夫。”

細葉輕陰滿座風	가는 잎에 가벼운 그늘 서렸는데 바람이 부네
桃李盛時雖寂寞	복숭아 살구꽃 필 때는 쓸쓸하나
雪霜多後始青葱	심한 눈과 서리 지나간 후 비로소 푸른 자태 드러내리
一年幾變枯榮事	다른 꽃들은 한 해에 많은 영락함이 있으나
百尺方資柱石功	소나무만은 기둥석 같은 굳건한 자질 있으리
爲謝西園車馬客	서원에 모이던 수많은 거마객들
定悲搖落盡成空	슬프게도 모두 사라져 부질없나니

작은 소나무는 정원 나무 중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신만의 자태를 외로이 지키고 있다. 잎도 무성하지 않고 꽃도 화려하지 않아 복숭아와 살구꽃처럼 ‘盛時’를 갖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나무의 진가는 눈과 서리가 지나간 후 비로소 드러난다. 순간의 영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푸른 자태를 묵묵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소나무의 청정함을 칭송하는데 있어 여러 전고를 활용하여¹¹⁾ 마치 역사적인 증명을 거친 듯한 사실성을 부가하고 있다. ‘孤秀’에서 눈과 서리를 맞은 후 ‘靑葱’의 모습을 보이다가 ‘柱石功’의 견실한 모습으로 인식되는 과정은 마치 주목을 못 받던 한 인재가 어려운 세상을 견디어 낸 후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는 인간승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李白이 벼슬길에 있는 侍御士 韋黃裳에게 써 준 다음 시는 소나무의 절개를 지칭하며 올곧은 지조를 지킬 것을 권유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贈韋侍御黃裳」其一	
太華生長松	화산에서 자라난 소나무
亭亭凌霜雪	눈과 서리에도 깨끗하게 치솟아 있네
天與百八高	하늘 향한 백 여덟자 높이
豈爲微纒折	어찌 작은 바람이 꺾이리오
桃李賣陽艷	복사꽃과 살구꽃이 햇살에 아름다움을 팔아
路人行且迷	길가의 행인들을 미혹케 해도

11) “雪霜多後” 구절은 『論語·子罕』편의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柱石功”은 『漢書·霍光傳』의 “將軍爲國柱石.”, “西園”은 曹丕 「芙蓉池作」의 “逍遙步西園”, 曹植 「公宴」의 “清夜游西園” 등의 구절을 활용하였다.

春光掃地盡	봄빛이 땅을 쓸어가면
碧葉成黃泥	푸른 잎 누렇게 변하나니
願君學長松	원컨대 그대는 소나무의 정절을 배워
愼勿作桃李	복사꽃과 살구꽃 같이 뉘를 삼가시게
受屈不改心	굴욕을 당해도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然後知君子	결국에는 군자로 알려지리니

암벽이 많고 험난한 太華(華山)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지형적인 어려움과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리에도 깨끗하게 치솟아 있으니 ‘亭亭凌霜雪’은 바로 이런 소나무의 힘찬 기상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다. 소나무의 형체가 ‘百八高’에 달해 작은 바람에는 요동하지 않듯이 큰 그릇을 배양하여 하찮은 일에 미혹됨 없기를 권유하였고 일시의 아름다움으로 세속인들의 시선을 끌기 보다는 변치 않는 정절을 지킬 것을 또한 권유하고 있다. 말연에서 ‘受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벼슬길에서 무고하게 참언을 당해 실의할 경우를 경계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처음의 충성심을 변치 말고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그 고귀한 인품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권면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¹²⁾

清代 陸惠心이 쓴 「詠松」一首에서도 간략한 묘사 속에 소나무의 고아하고 정결한 점을 찬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詠松」	
瘦石寒梅共結鄰	마른 바위와 차가운 매화와 함께 歲寒三友인 소나무
亭亭不改四時春	사계절 동안 깨끗한 기상을 바꾸지 않는다
須知傲雪凌霜質	모름지기 눈과 서리 이겨낸 본바탕 있음을 알겠거니
不是繁華隊里身	화려함 속에 자기 자신을 함께 하지 않음이라

12) 소나무를 통해 정절을 지킬 것을 권유한 이 시는 권면의 뜻을 펼침에 있어 보편적으로 인용될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 하겠다. 清代에 나온 『唐宋詩醇』 卷五에는 이 시에 대해 “古道照人，得朋友交勉之，勸君青松之心，努力保霜雪。立言如此，可以不朽。”라고 하고 있어 이 시가 보편적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陸惠心은 靑松을 ‘瘦石’, ‘寒梅’와 함께 歲寒三友의 절개를 지닌 생물로 묘사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끗끗한 기상을 바꾸지 않는(亭亭不改)” 소나무는 눈과 서리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였기에 강인하고도 진실한 성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나무의 늠름한 기상은 세상의 화려함과 벗하지 않는 정결함을 간직한 덕분이라는 것을 결미에서 설파하고 있다. 혹한을 이겨내고 紅塵을 제거한 연후에야 끗끗한 기상과 순수성을 얻을 수 있다는 시인의 주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나무는 常綠을 유지하는 영속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절개를 지키는 나무라는 칭송을 받았고 이는 변치 않는 고매한 인격을 지닌 군자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무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계절의 변화나 눈과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不搖不屈”의 기개는 “不變”, “亭亭”, “靑靜”, “凌雲” 등의 단어와 함께 많은 시가 속에서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¹³⁾ 늘 푸르고 단정한 모습을 띤 소나무의 의연한 자세는 사람들에게 눈이 시리게 푸른 기상은 가르쳐 주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2. 강인한 생명력과 장수의 표식

소나무는 이식이나 분재를 하면 살기 어려운 나무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러

13) 예거한 李白의 시처럼 白居易도 「和松樹」에서 “산 위의 우뚝 솟은 소나무, 하나하나 햇살을 향해 서있네. 뽀뽀이 하늘 향해 뻗어나, 가지는 백 척이나 되는구나. 세모에도 설산에 그득하여, 소나무의 푸른 빛 그득하네. 이는 가히 군자의 마음이요, 절조를 지키며 얼음과 서리 이겨내나니. (亭亭山上松, 一一生朝陽. 森聳上參天, 柯條百尺氏. 歲暮滿山雪, 松色鬱靑蒼. 彼如君子心, 秉操貫冰霜.)”라고 하여 “亭亭” 등의 표현을 통해 소나무의 청정한 기상과 불변의 위상을 칭송한 바 있고 다른 많은 시가에서도 소나무는 불변의 기개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14) 분재 중에서 관리가 가장 힘들고 키우기 어려운 것으로는 木本 중에는 소나무, 草本 중에는 蘭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나무에는 콩과식물처럼 소나무와 함께 사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소나무와 함께 이 박테리아를 잘 살려야 하지만 이 박테리아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이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권영환,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서울: 전원문화사, 1997.), 제164쪽 참조)

나 자신의 의지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한다면 소나무는 어느 나무보다도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나무이다. 오늘날 동북아에서 소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로 자리잡게 된 것은 소나무가 지닌 강인한 생명력에서 연유한다. 소나무는 양지식물로 햇볕만 있으면 척박한 땅과 건조함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돌무더기나 바위틈, 흙 한 줌 없는 높은 바위산 봉우리에서도 살아나가며 심지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도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준다. 파도가 뿌리는 소금 물방울을 맞고도 푸른 기상을 유지하며 왕성히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식물들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경지인 것이다. 소나무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점은 목재로서의 강도와 오랜 수명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절에서는 소나무의 이미지 중 강인한 생명력과 장수의 표식을 드러낸 작품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杜甫의 시가 중에 이식 후에도 강건하게 자라는 소나무를 보고 국가의 처지를 생각하며 국난 속에서도 소나무처럼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를 기원한 작품이 있다.

「四松」

四松初移時	네 그루의 소나무 처음 옮겨와 심었을 때에
大抵三尺強	대략 세 척 정도의 크기였다.
別來忽三載	다른 곳으로 갔다가 홀연히 삼 년 만에 다시 오니
離立如人長	마치 사람들처럼 의연히 줄지어 서있다
會看根不拔	뿌리가 뽑히지 않음을 보나니
莫計枝凋傷	가지가 상할 걱정은 없는 거다
幽色幸秀發	다행스럽게도 그윽한 색깔 빼어나고
疏柯亦昂藏	거침없이 자란 큰 나무줄기 기개가 대단하다
所插小藩籬	지금은 작은 울타리처럼 심어져 있으나
本亦有堤防	소나무는 본래 제방 역할을 할 힘이 있다
終然振撥損	그러나 중국에는 훼손을 당해
得愧千葉黃	부끄럽게도 많은 잎이 누렇게 되지 않을까
敢爲故林主	감히 성도 초당의 주인으로써 생각해 볼 진데
黎庶猶未康	이 땅의 서민들은 아직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있네
避賊今始歸	도적을 피해 이제야 돌아왔건만

春草滿空堂	초당은 온통 황폐해있다
覽物嘆衰謝	주위의 황폐한 물건을 보면서 시절의 쇠락함을 한탄하다가
及茲慰淒涼	네그루 소나무를 보매 처량함을 위로 받는다

成都에서 초당을 짓고 살 때 지은 작이다. 수연에서 처음 草堂을 지은 후 세 척 높이의 소나무 네 그루를 이식하여 심었음을 밝히고 있다. 杜甫는 代宗 寶應 元年(762) 成都를 떠났다가 삼 년 후인 764년에 다시 돌아왔으니 제3연의 ‘忽三載’는 이를 의미한다. 돌아와서 네그루의 소나무가 사람처럼 두 그루씩 견재하게 마주보고 서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¹⁵⁾ 돌보지 못했음에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하며 杜甫는 ‘幸’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소나무가 제방 역할을 할 능력이 있음을 설파한 “本亦有堤防” 역시 소나무의 강인함을 찬양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도적이 횡행하고 불안한 시국이 이어지니¹⁶⁾ 나라의 안위를 생각할 때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집 떠난 사이에 황폐해진 초당 주변의 물품들을 살펴보다 그래도 변치 않고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서있는 소나무를 보고 이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 여기서 ‘四松’은 변치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변이 황폐해졌음에도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발하고 있는 믿음직한 知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말에 걸맞게 오랜 수명을 향유하는 소나무의 속성은 “祝壽”와 “長生”의 표상으로도 흔히 형용되어왔다. 이른바 장수를 상징하는 “十長生” 중 하나로써 소나무의 위상은 長生不死의 표현에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다.¹⁷⁾ 인간이 강렬히

15) 『禮記·曲禮』에 “離坐離立, 毋往參焉.”이라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해 鄭玄의 “離, 兩也.”라는 주가 있다. ‘離’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니 소나무 네 그루는 두 그루씩 마주보고 사람처럼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6) 代宗 寶應 元年(762) 7월에 劍南節度使 嚴武가 조정으로 돌아가자 徐知道가 成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杜甫는 梓州, 閬州 등을 떠돌다가 廣德 2년 嚴武가 다시 成都로 부임하자 草堂으로 돌아오게 된다. ‘避賊’은 이 徐知道의 반란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17) “十長生”은 “해, 구름, 山, 水, 돌, 솔, 불로초, 거북, 鶴, 사슴”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이

희구하는 것이 ‘장수’라는 점과 비견해볼 때 소나무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詩經·小雅』 「天保」편에서는 송백의 무성함을 들어 군주의 鴻德을 비유하였는데 常綠의 속성을 지닌 소나무가 무한과 영원, 장수 등의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詩經·小雅』 「天保」

如月之恒	차오르는 달처럼
如日之升	떠오르는 해처럼
如南山之壽	남산의 영원함처럼
不騫不崩	헐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如松柏之茂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무성함처럼
無不爾或承	그대를 계승하지 않음이 없도다

임금의 덕을 찬양함에 있어서 불변의 기상을 지닌 송백을 예거하였다. 해, 달, 남산 등의 十長生과 함께 松柏 역시 끝없이 후대로 이어지는 장수의 표상과 무한한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묘사를 가한 것이다.

唐代 李嶠의 다음 시는 소나무의 절개를 묘사하면서 장수하는 특성에 주목을 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松」

鬱鬱高岩表	높은 바위 위에서도 울창한 숲을 이루고
森森幽澗陁	깊은 시냇물가에 뾰뾰한 가지를 드리웠다
鶴栖君子樹	이 군자의 나무에 학이 깃드니
風拂大夫枝	바람이 오대부송 가지를 흔드네
百尺條陰合	백 척의 가지에서 그늘을 이루니
千年蓋影披	천년 동안 그 그림자 덮이리라
歲寒終不改	날씨가 추워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연계되어 묘사되는 것은 鶴이다. 古人들은 鶴을 산에 사는 생물로 고결하고 청아하여 신선의 기운을 지닌 존재로 보았으며 소나무는 ‘靜’이고 鶴은 ‘動’, 소나무는 ‘剛’이고 鶴은 ‘柔’의 존재로 보았다. 이 둘을 합친 ‘松鶴’이 長壽, 延年, 順理의 상징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勁節幸君知 그 굳센 절조를 그대는 알아주길 바라노라

수연은 ‘鬱鬱’과 ‘森森’으로 높고 그늘진 곳 모두에서 왕성한 생육을 자랑하는 소나무의 속성을 칭송하면서 시작하였다. 이어 소나무가 지닌 면모에 장수와 고결함의 표상인 ‘鶴’을 병치하여 그 빼어남을 배가시켰고 秦始皇의 五大夫松 고사를 활용하여 신비감을 증폭시켰다. 이어 ‘百尺’, ‘千年’ 등으로 길고 영구한 세월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앞 연의 鶴과 함께 소나무의 장수를 칭송하는 구절이 된다. 이 시에서는 소나무의 ‘歲寒’에도 변치않는 기개나 고아함, 절조, 기개 등의 여러 특징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칭송을 가하고 있는 것은 오랜 영속성, 장수 등에 대한 경이로움이라 하겠다.

宋代 吳芾이 쓴 「詠松」一首도 소나무의 장수하는 속성을 주목하여 쓴 시이다.

「詠松」

古人長抱濟人心	옛 사람들은 세상을 제도할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나니
道上栽松直到今	길가에 소나무를 심은 것 지금까지 이어오네
今日若能增種植	오늘날 소나무를 더 심게 된다면
會看百世長青陰	백 세대를 거쳐 가며 오랫동안 푸른 그늘을 이룰 수 있으리

소나무의 한계수령은 정확치는 않으나 대략 300년에서 500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심어진 소나무는 먼 훗날을 보고 고인들이 심어놓은 것이니 이에 대한 고마움과 후세에 대한 준비로써 소나무를 植生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말구의 ‘百世’라는 표현은 소나무가 장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소나무처럼 자손이 대대손손 평안을 누리기를 기원한 내용이다.

역대 시가에서 소나무는 주로 節義의 상징으로 많이 묘사되었지만 강하고 장수하는 속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대상으로도 인식되었다. 특히 “十長生”의 하나로써 소나무는 학과 바위, 사슴 등과 함께 자주 언급되었으니 十長生圖를 비롯한 松鶴圖, 松巖圖, 松鹿圖 등의 그림은 모두 장수의 의미를 묘사한 것이 된다. 천년을 산다는 학이 집을 짓고 장수한다

는 거북도 엮드린다는 소나무는 짧은 세상을 살다가는 인간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¹⁸⁾ 각종 시가나 歲畫를 비롯하여 家禮나 壽宴 등의 자리에 소나무를 상징하는 내용이나 그림이 등장하였던 것은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3. 인내력과 내한성의 상징

각종 시가에서 소나무가 지닌 불변의 절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로 소나무가 지닌 인내력과 내한성도 거론할 수 있다. 소나무는 추위 속에서 잘 자라는 침엽수로서 측백나무와 더불어 영하 80도에서도 견디는 강인한 존재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지방에서도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¹⁹⁾ 열대성 기후보다는 한대성 기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나무라 하겠다.²⁰⁾ 전통적으로 “歲寒”의 이미지가 강한 소나무는 宋代로 오면서 추위에 강한 대나무, 매화와 함께 “松竹梅”, “歲寒三友” 등으로 병칭되기 시작했다.²¹⁾ 내한성을 지닌 세

18) 오래 사는 물체에 靈性和 神性을 부여하는 인간의 의식에 소나무는 때로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인식되었다. 道家에서 소나무가 長生不老의 중요한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여 道教 神話 중에서 소나무는 종종 不死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니 솔잎이나 소나무 뿌리 등을 복용하면 신선이 된다는 식의 양생법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19) 강관권, 『나무열전』, (파주: 솔향아리, 2007. 8.) 제81쪽 참조.

20)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에도 이상고온이 되면 소나무들은 오히려 힘을 못하고 대신 더위 속에 잘 자라는 활엽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식생변화 예상도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100년 뒤인 2100년에 한반도의 기온이 1990년보다 2.08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소나무는 10분의 1로 줄어 태백산, 지리산 그리고 설악산 극히 일부 지역에 조금 남아서 자랄 뿐 남한 전역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한대성 기후에 적절한 소나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면이다.

21) 宋代로 오면서 문인들이 松竹梅를 병칭하여 “歲寒三友”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林景熙는 『雲梅舍記』에서 “即其居累土爲山, 種梅百本, 與喬松、修篁爲歲寒友”라고 했고 元 雜劇 『漁樵閑話』에서는 “那松柏翠竹皆比歲寒君子, 到深秋之後, 百花皆謝, 惟有松、竹、梅

식물에 대한 칭송이며 이러한 내한성은 시가작품을 통해 시련에 강한 면모와 인내력의 상징으로 자주 묘사되게 되었다. 실의에 빠져 좌절했을 때 바위벼랑을 뚫고 내린 소나무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거나 차가운 폭설을 뒤집어쓰고도 기개를 보이고 있는 소나무를 통해 인내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속성은 “누항에 기거하면서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도 인내하며 절조를 지키는”²²⁾ 유가 선비의 수양정신과도 잘 부합된다. 이렇듯 소나무가 내한성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면모는 역대 시가에서 소나무의 불변성과 절개 못지않게 자주 묘사되었던 것이다. 소나무의 인내력을 묘사한 작품으로 南朝의 樂府民歌 「冬歌」를 살펴보자.

「冬歌」

淵冰厚三尺	연못의 얼음 두께가 세 척
素雪覆千里	흰 눈은 천리를 덮었네
我心如松柏	내 마음은 송백과 같은데
君情復何似	그대의 정은 무엇과 같나요?
果樹結金蘭	과수와 금란 같은 열매를 맺지만
但看松柏林	그저 송백 숲만 바라봅니다
經霜不墜地	서리를 겪으면서도 지지 않고
歲寒無異心	날이 추워도 다른 마음 품지 않지요

연못의 얼음 두께가 세 척에 달하고 눈이 천리를 덮을 정도로 차가운 겨울이 이어지지만 자신의 마음은 松柏과 같이 세파를 견디어내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서리와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절조를 표현하는 것이 이 시의 주요 주제인데 그 바탕에는 차가운 겨울을 견디는 ‘사랑의 인내’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花, 歲寒三友.”라고 하여 역경과 곤란에도 굴하지 않는 절조있는 인물을 비유하여 지칭했음을 살필 수 있다. 宋代에 畫家들도 松竹梅를 三友로 칭하며 함께 그림을 그렸으니 樓鑰는 「題徐聖可知縣所藏楊補之畫」에서 詩를 붙여 말하기를 “梅花屢見筆如神, 松竹寧知更逼真. 百卉千花皆而友, 歲寒只見此三人.”이라 한 바 있다.

22) 『論語』「雍也篇」：“子曰：賢哉回也。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

다음 劉楨의 작품에서도 소나무의 불변성을 거론하는 중에 인내하는 속성을 주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贈從弟」其二

亭亭山上松	정정한 산 위의 소나무
瑟瑟谷中風	솔솔 부는 계곡의 바람
風聲一何盛	바람 소리 강하다 해도
松枝一何勁	솔가지 또한 강건하다
冰霜正慘淒	서리가 차갑게 내려도
終歲常端正	소나무는 끝까지 항상 단정하다
豈不罹凝寒	어찌 혹한의 고통이 없을까 마는
松柏有本性	송백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나니

수연에서 ‘亭亭’, ‘瑟瑟’ 등의 첩어를 통해 소나무의 강인함을 부각시켰고 제2연에서 반문의 어기를 지닌 ‘一何’를 반복적으로 운용하면서 강대한 바람 소리와 맞서는 소나무 가지의 강인함을 강조하였다.²³⁾ 바람에 이어 차가운 서리와 추위를 등장시켰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외부 날씨에도 소나무는 끝까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고통을 이겨내며 불굴의 의지를 발하는 소나무는 동생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 가장 좋은 비유

23) 역대 시가에서 소나무의 강인함을 나타낼 때는 눈, 혹한 등의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였고 장수를 나타낼 때는 十長生들과 함께 묘사되었으며 한적한 경지를 표현할 때는 바람과 함께 비유되기도 했다. 일례로 李白이 쓴 「南軒松」에는 “남헌에 소나무 한 그루 있어, 가지와 잎이 풍성히 뒤덮여 있다. 맑은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니, 맑은 정신 속에 밤낮을 보낸다. (南軒有孤松, 柯葉自綿綿. 清風無閑時, 灑灑終日夕.)”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宋 徽宗 崇寧 元年(1102)에 黃庭堅이 鄂城 樊山에서 노닐다가 솔숲의 정자에서 바람소리를 듣고 「松風閣」이라는 七言詩를 썼는데 이 시가 담긴 『松風閣詩帖』은 黃庭堅 만년의 行書로도 유명하다. 이 서책은 滄逸의 『蘭亭』, 顏氏의 『祭侄』 등의 行書 精品과 병칭될 만한 명성을 갖고 있다. (현재 台北 故宮博物院 소장) 또한 河北 承德的 避暑山莊에 “萬壑松風”이라는 독특한 건축이 있는데 계곡에 심어진 古松의 모습처럼 고요한 환경을 제공하여 역대 청나라 황제가 한적하게 독서를 할 수 있었다 한다. 소나무와 바람의 병칭을 나타낸 예들인데 이를 통해 소나무와 바람의 병칭은 시련을 나타낼 때 뿐 아니라 佳境을 묘사할 때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이라 본 것이다.

唐代 錢起가 쓴 「松下雪」一首 역시 소나무의 인내하는 속성을 매우 깊이 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松下雪」	
雖因朔風至	삭풍에 눈 흩날려도
不向瑤臺側	대궐 섬돌 위에 내리지 않는구나
惟助苦寒松	차가운 소나무 시달리는 것 도와
偏明後凋色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기상을 밝혀주네

朔風에 눈이 흩날리지만 높은 신분을 지닌 이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눈은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제3구에서 ‘苦寒松’이라 하여 눈을 차가운 소나무가 시달리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 이채로운 발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나무는 진정으로 “後凋色”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²⁴⁾

이상과 같은 시들을 통해 소나무가 지닌 청정한 면모는 고난과 혹한을 이겨내는 인내의 바탕에서 형성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歲寒三友”의 으뜸으로 꼽히는 소나무는 역대 많은 시가에서 인내력과 내한성을 주목한 묘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여왔다. “솔가지 하늘 향해 차곡차곡 올라가고, 뽕뽕한 솔잎은 은하수에 펼쳐있네. 강한 바람은 굳은 정절을 알지니, 눈을 뒤집어 쓴 다음에야 그 정절을 보인다네. (修條拂層漢, 密葉障天濤. 凌風知勁節, 負雪見貞心.) (南朝 范云 「詠寒松詩」), “송백은 죽어도 변치 않나니, 천년을 두고 푸르름을 간직한다. 지사는 빈한할수록 더욱 강건하나니, 도를 지킴에 별도의

24) 이 시가의 내용은 『孟子』 「告子」편의 “고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 체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 하는 바에 불난을 행하니 마음을 움직이고 성을 참도록 하여 그 할 수 없는 것을 더욱 늘리려는 것 때문이다.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구절의 뜻을 연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경영함이 없다. (松柏死不變, 千年色青青. 志士貧更堅, 守道無異營.”(唐 孟郊 「答郭郎中」), “큰 눈이 푸른 솔을 짓눌러도, 푸른 솔은 곧고 바르다. (大雪壓青松, 青松挺且直.)”(陳毅 「詠松」), “푸르른 빛 본래 서리 내린 후에 또렷하고, 소나무에 이는 차가운 소리 달 빛 속에 들려온다. (翠色本宜霜后見, 寒聲偏向月中聞.)”(唐 韓溉 「松」) 등의 구절은 모두 소나무의 강인한 인내력을 칭송한 구절의 예이다. 혹한을 이겨내는 인내력을 통해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야말로 진정한 강자인 것이다.

4. 외로움이나 회재불우함의 표현

소나무는 품격이 고상하고 절개가 뛰어난 나무이다. 높은 바위에 외로이 솟아있는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상한 면모도 느끼게 해준다. 소나무는 균락을 지어 자라면서 청정함을 유지하기도 하고 외롭고 험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분명 소나무의 장점이나 한편으로 소나무는 속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고아한 면모도 지니고 있다. 시가에서 소나무를 표현할 때 흔히 “孤松”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나무의 ‘고고한 자태’를 나타낸 경우가 많지만 간혹 ‘고독하게 서 있는 존재’의 이미지로 “孤松”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되는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獨也青青’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장엄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견 외로운 분위기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역대 시가 중에 소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이나 懷才不遇한 신세를 표현한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본절에서는 소나무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회한의 투영체가 된 작품의 예들을 들어 그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顧愷之가 쓴 사계절을 노래한 「神情詩」에는 봄물, 여름 구름, 가을 달, 겨울 산 등의 배경이 나오는데 겨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식물로 소나무가 등장한다.

「神情詩」

春水滿四澤	봄물은 사방 못마다 그득하고
夏雲多奇峰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마다 걸려있다
秋月揚明輝	가을 달은 휘영청 밝은 빛 비추는데
冬嶺秀孤松	겨울 산마루에는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다

사계절의 특징만 추려내어 짙막하게 지은 시인데 함축적인 묘사 속에 사계절의 변화와 오묘한 질서가 담겨있다. 그런데 여기서 땅과 하늘을 오가는 시선 속에 포착된 소나무는 균락을 짓지 않고 외로이 홀로 산마루에 걸쳐있는 모습이다. 겨울의 쓸쓸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로 소나무가 활용된 예라 하겠다.

소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훌륭한 재목감이 되므로 그 효용성도 크다.²⁵⁾ 이러한 점으로 인해 소나무는 시가에서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흔히 등장한다. 하지만 인재란 타인이 알아주거나 선발되었을 때 그 효용성이 드러나는 것이니 뛰어난 인재가 주목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희생의 재물이 되는 경우²⁶⁾에는 무한한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소나무가

25) 소나무는 건축재로써도 매우 강인한 면을 갖고 있다. 전통 궁궐이나 가옥의 구조는 수직부재인 기둥과 수평보재인 보와 도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굵은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보를 걸어서 칸을 늘려갈 때 건물의 각 모서리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보와 도리로 사용되는 목재는 건축물의 하중을 충분히 이겨낼 정도로 강해야 하기에 소나무를 건축재로 많이 쓰고 있다. 소나무 목재를 활용한 건물이 수백년 수명을 어여 나가고 있는 것은 소나무 목재의 압축강도와 휨강도가 다른 나무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전영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서울: 현암사, 2004. 10.) 제230쪽 참조)

26) 晋代 劉琨은 「扶風歌」에서 소나무가 재목으로 쓰여짐을 그렸으니 소나무의 희생을 노래한 대표적 시가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산의 바위 험준한데, 소나무와 측백나무 얼마나 무성한가. 윗가지는 푸른 구름까지 솟고, 중심은 십여 아름이나 되네. 낙양에서 대들보를 올리기 시작하여, 소나무들 스스로 슬퍼하네. 도끼와 톱이 이 소나무들을 잘라내니, 소나무들 동서에 꺾이여지네. 특별히 만든 네 바퀴 수레로, 낙양궁까지 실어가네. 보는 사람들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어느 산의 목재냐고 물어보네. 누가 능히 이를 깎고 다듬을 것인가, 공수 노반이라네. 여기에 붉은 칠을 입히고, 소합향을 쏘이네. 본래 남산의 소나무였는데, 이제는 궁전의 대들보가 되었다네. (南山石崑崙, 松柏何離離. 上枝拂青雲, 中心數十圍. 洛陽發中梁, 松樹竊自悲. 斧鋸截是

추위와 눈을 이겨내기 전까지 그 면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면모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숨은 인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東晉代 謝安의 질녀이며 安西將軍 謝奕의 딸인 謝道韞의 작품에서도 자신이 느낀 시대적 한계와 懷才不遇의 신세를 소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擬嵇中散詠松」

遙望山上松	아득한 산 위의 소나무
隆冬不能凋	맹렬한 겨울추위에도 시들지 않았다
願想游下憩	저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다면
瞻彼萬仞條	만 길 높은 곳에 달린 가지를 쳐다본다
騰躍未能升	뛰어 올라도 닿을 수 없어
頓足俟王喬	전설 속의 왕교를 그저 기다릴 뿐
時哉不我與	시대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아
大運所飄颻	큰 운은 그저 날아가 버렸나

산꼭대기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의 빼어난 품격을 찬양하고 있지만 수구에 나타난 ‘遙望’이라는 표현은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담겨있다. 3, 4구에서 소나무와 함께 하고픈 욕심을 드러냈으나 결국 이는 먼 산 위의 존재로 다가갈 수 없는 꿈의 경지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평을 듣고 호방한 성품을 지녔으나 여성의 몸으로 큰 뜻을 펼치기에는 세상과의 거리감이 있다. 학을 타고 날아다녔다는 신선 王喬처럼 羽化登仙의 경지에 올라야 저 멀리 있는 소나무에 닿을 수 있겠다는 상상력만 발휘해 볼 뿐이다.

이어 唐代 杜荀鶴이 어린 소나무가 미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회를 표현한 「小松」一首를 보자.

松, 松樹東西摧. 特作四輪車, 載至洛陽宮. 觀者莫不歎, 問是何山材. 誰能刻鏤此, 公輸與魯班. 被之用丹漆, 熏用蘇合香. 本自南山松, 今爲宮殿梁.” 이 중 “소나무들 스스로 슬퍼한다(松樹竊自悲)”는 구절을 통해 소나무의 희생과 인재의 좌절을 연계한 행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小松」

自小刺頭深草里	일찍이 어려서는 풀 속에 묻혀 있다가
而今漸覺出蓬蒿	이제야 점차 높은 모습을 드러내네
時人不識凌雲木	당시 사람들 능운목임을 알지 못하나
直待凌雲始道高	하늘 높이 구름을 뚫고 솟아야 비로소 높다 하리라

어린 소나무가 막 땅 속에서 나와 풀숲 속에 있을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끌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刺頭’를 지닌 소나무는 기개를 접지 않고 묵묵히 성장을 이어나간다. 일정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나무가 ‘凌雲木’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짧은 세인들의 예지력에 대해 詩人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시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세인들에 의해 알려지지 못하고 꺾여나가거나 잘려진 소나무의 존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自小’, ‘漸覺’, ‘凌雲’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흐름은 주목받지 못하던 인재를 세상을 향해 기개를 펼쳐나가는 일련의 성장과정을 의미 있게 표현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²⁷⁾

소나무는 거친 곳이나 궁벽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는 하지만 그런 연고로 얼핏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인들은 계곡 밑 개울가에 자라는 소나무 ‘澗底松’²⁸⁾을 들어 회재불우의 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唐代 白居易가 澗底松을 소재로 하여 회재불우의 심정을 드러낸 다음 시를 보자.

「澗底松」

有松百尺大十圍 크기가 열 아홉인 백 척의 소나무가 있는데

27) 이 시는 작자 杜荀鶴이 寒微한 출신이었기에 재주가 있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帝里無相識”「辭九江李郎中入關」)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지고 일생동안 실의한 채로 살아간 것을 비유한 시인 자신의 자아를 표현한 시가로도 볼 수 있다.

28) ‘澗底松’은 晉代 左思의 「詠史詩」의 “무성한 것은 계곡 밑의 소나무요, 축 늘어진 것은 산꼭대기의 풀삭이로다. (鬱鬱澗底松, 離離山上苗.)”에서 온 말로 재주가 뛰어난 이가 계곡 밑 즉 낮은 자리에 있고 이에 비해 재주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가의 자재들을 풍자한 시어로 쓰인다.

生在澗底寒且卑	개울 밑에 있어 차갑고 비루하다
澗深山險人路絕	계곡은 깊고 산은 험해 길이 끊어졌고
老死不逢工度之	늙어 죽어도 공인의 베임을 받지 못하네
天子明堂欠梁木	천자는 명당을 위해 대들보를 베고자 하나
此求彼有兩不知	여기저기서 구해도 서로 알지 못하누나
誰喻蒼蒼造物意	그 누가 하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으랴
但與之材不與地	그저 재주만 있을 뿐 좋은 땅을 찾지 못했음이라
金張世祿原憲貧	金日磾와 長安世는 세상의 녹을 누렸으나 黃憲은 빈한했고
牛衣寒賤貂蟬貴	풀 옷은 춥고 천하나 관복은 귀하도다

소나무는 높이가 백 척이요 십 리까지 돋보일 정도의 위용을 갖추고 있으나 처한 곳이 계곡 밑 개울가라 늘 차갑고 비루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 알아 주는 이 없어서 끝까지 공인에 의해 쓰임도 얻지 못하는 처지이다.²⁹⁾ 天子는 인재를 구하고 자신도 관직을 갈구하나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세상의 현상을 보노라니 옛날 漢代 간신인 金日磾와 長安世는 세상의 녹을 누렸으며 黃憲과 같은 현자는 쓰임을 받지 못해 빈한함을 면치 못했던 세상사가 다시금 회상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³⁰⁾

성장이 다른 나무에 비해 늦지만 처음 거친 땅을 뚫고 싹을 틔울 때부터 눈과 서리의 억압을 이겨내며 자라나는 소나무의 특성은 각종 시가에서 才子佳人이나 영웅이 겪는 고난을 묘사하기에 충분한 면모를 지녔다.³¹⁾ 소나무는

29) ‘工度之’는 『左傳』 隱十一年引周諺의 “山有木，工則度之；貧有禮，主則擇之。”에서 유래한 말로 ‘度’은 ‘鋸’의 의미가 있다.

30) 漢代 金日磾와 長安世는 『漢書·本傳』에 나오는 인물이며 賢者로 알려진 黃憲은 자가 叔度이며 東漢人이었다. 부친이 中醫였으나 집안이 빈한했다.

31) 또 다른 예로 金代 鄭權은 「竹林寺矮松」一首에서 竹林寺矮松을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용의 형상으로 묘사하면서 “편적된 신세 날기 어려우니, 이곳에 떨어진 후로 운신하기가 어려워라. 손과 발이 오그라들고, 기운이 위축되어 펼치기 어렵다. 늙어 누운 몸 무력하여, 초부가 재목으로 잘라가길 원하나니. 바람이 없어 홀로 슬피 읊조리고, 물이 없으니 어찌 神龍이 될 수 있으랴. (謫重飛難舉，墮此蜿蜒身。聯拳縮爪股，氣屈不得伸。臥枝老無力，支撐藉樵薪。無風自悲吟，失水固不神。)”라고 하며 仕途에서 실의한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이렇듯 소나무는 인제의 고난을 형상화하는데도 자주 활용되

자연물이므로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성을 보면 매우 지혜로운 면모를 지녔음이 발견되니 특히 종족번식에 있어서 매우 영리한 면모를 보인다.³²⁾ 그러한 점은 소나무가 지닌 불변의 기개, 인내와 내한성으로 대표되는 강인함 등과 함께 영민한 인재의 형상을 그리기에 충분한 품성을 지녔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인 것이다.

Ⅲ. 결어

본문을 통해 中國 歷代 古典詩歌에서 활용된 소나무(松樹) 표현의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가 속에서 표출된 소나무의 다양한 이미지와 내면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고찰해보았다.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소나무는 한반도 어디서나 잘 자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나무이다. 중국에서도 소나무는 청정한 기운과 기개를 자랑하며 가히 나무중의 제왕이라는 칭송에 맞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詩人들에 의해 역대 시가에서 묘사된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강인한 생명력과 장수의 표식, 인내력과 내한성의 상징, 외로움이나 회재불우함의 표현 등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존재였다.

었다.

32) 소나무의 영리함이란 종족번식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소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같은 나무에서 핀다. 남매끼리의 수정은 자손의 형질을 점점 나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소나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암꽃은 꼭대기 근처에, 수꽃은 아래 나뭇가지에 피도록 설계했다. 풍매화인 소나무 꽃가지가 바람에 날아가 위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으니 남매 수정이 안 되도록 일차적인 안전조치는 한 셈이다. 회오리바람 등 골기의 상하 이동도 드물게 있다는 사실을 배려하여 암수 꽃이 피는 시기를 약 일주일 정도 차이를 두었다. 또 남매 수정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하다 엄혹한 자연계에서 자칫 자손이 아예 생기지 못하는 불행이 생길까봐 5퍼센트 전후는 수꽃이 위로 가고 암꽃이 아래로 내려와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이 정도면 소나무가 영리하다고 해도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 같다. (박상진, 『우리나무의 세계』, 서울: 김영사, 2011. 1.372 쪽)

화사한 단풍을 뽐 낸 후 모든 식물이 잎이 떨어지거나 시들어가도 소나무는 수려한 청록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고 흑한과 강풍을 이겨내는 강인한 면모를 자랑하는 나무이다. 소나무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자라고자 하면 아무리 궁벽한 곳이나 바위 위에서도 생명을 이어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장수의 상징으로도 매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꺾질과 잎, 열매 등의 효용성도 크고 재목으로서의 가치도 지대하여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나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나무는 화사함을 지녔으며 생명력이 짧아 일시에 피고 지는 꽃나무의 모습이나 외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나무와는 다른 매력을 지닌 나무이다. 효용성과 외모, 이미지와 의미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어느 나무보다도 큰 상징성을 지닌 나무이다. 따라서 소나무는 인간에게 존재에 대한 관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거나 인생을 반추하게 만드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해 온 나무였다. 역대 시인들이 소나무가 지닌 강렬한 매력을 주목하여 쓴 작품들은 소나무를 통해 시인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기상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었다. 청정한 자연물인 소나무를 아끼고 그 의미를 배우고 싶어했던 시인들의 마음과 노력, 이 점이 바로 中國 古典詩歌에서 소나무가 중요한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끊임없이 묘사되어왔던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李文初, 『中國山水詩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1. 5.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1.
- 俞 琰, 『詠物詩選』, 成都: 成都古籍書店, 1984.
- 麻守中, 張軍, 『歷代旅游詩文賞析』,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 10.
-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 김태정, 『우리 꽃 백가지』, 서울, 현암사, 1990.
- 권영한,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서울: 전원문화사, 1997.
- 강관권, 『나무열전』, 파주: 숲향아리, 2007. 8.
- 박상진, 『우리나무의 세계』, 서울: 김영사, 2011. 1.
- 임경빈, 『소나무』, 서울: 대원사, 1998. 7.
- 전영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서울: 현암사, 2004. 10.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程 杰, 「論中國文學中杏花意象」, 『江海學刊』, 2009. 1.
- 張子剛, 「詠物詩審美特徵漫談」, 延安大學學報, 제22권 2003, 3.
- 王生平, 「論松竹梅菊的美」, 甘肅社會科學, 1994. 2기.
- 周泉根, 「松竹梅成爲中國審美文化傳統的內在發展邏輯」, 撫州師專學報, 제20권, 2001. 3.
- 楊福俊, 「談中國古典松竹梅詩歌」, 內蒙古電大學刊, 1994. 6기.
- 줄 고, 「중국 고전시가에 나타난 꽃의 상징성 고찰」, 남서울대논문집, 2010. 9.
- 줄 고, 「唐詩 중에 나타난 꽃 묘사양상과 미학적 특징」, 『中國研究』, 한국외대, 제50권, 2010. 12.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and imagery of Pine Tree in Chinese classical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the various symbols of the pine tree in ancient Chinese poetry. Pines are evergreen, coniferous resinous trees (or rarely shrubs) growing 3-80m tall, with the majority of species reaching 15-45m tall. There are so many pine trees in China, and the tree was received full of love by all the people. The various symbols of the pine tree in ancient Chinese poetry ar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the pine tree maintain evergreen appearance all the way and it means that the pine tree is full of expression of clearness, and the poems of pine tree are generally expressed the symbol of elegant, noble, highbrow.

The second, the pine tree have the strong will of survive and ability of live to a great age, so the poems of pine tree are express as the symbol of will of survive. In ancient Chinese poetry, the pine trees are represented in the expression of poet's resistance to injustice, fight against trial. The attribute of pine tree's live to a great age means like the wish of human's long life, so the pine trees are often expressed with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as symbol of long life and unchangeable in Ancient Chinese Poetry. The third, the pine tree also have attribute of cold hardness and strength, so the poems of pine tree are very often means of the expression of patience and endurance. The poets took off their hat to pine trees' perseverance, and can get powerful feelings of endurance by composing the poems about pine trees.

The fourth, the pine tree also have the symbol of a distinctive ability, as cause of the tree grows well even in barren soil comparing with other trees hard to grow in such bad soil. This attribute, sometimes, makes the pine tree have solitary atmosphere, and the poets often describe this attribute of

solitary by thinking of his lonely conditions and emotion.

Key Words : Landscape Poetry, Pine Tree, Symbols in Poetry of Pine Tree, the expression of tree, Sense of Beauty, Ancient Chinese Poetry.

투 고 일 : 2013. 1. 10.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